

11월23일(월)/누가복음21:10-19

제목: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

구약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사상 중 하나는 ‘주의 날’에 대한 사상이다. 이 날은 현 시대와 종말 시대의 중간의 날로써 우주적인 대변동과 파멸을 수반하는 공포의 날이다. 그러나 그 날에 세상 종말이 곧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알리는 신호의 성격 뿐이다. 예수님은 주의 날에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살육(10-16절)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은 하루 하루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날은 세계적인 대재앙의 날이 된다. 역사는 이 날을 향해서 지금도 직선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시 무시한 날에 살아남을 자도 있다고 하신다. 그 살아남는 자들은 미움과 증오를 받으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18절) 그들은 누구인가? 인내한 성도들이다.(19절) 예수의 이름이 그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 당하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전하게 주의 나라에 모셔지게 된다. 예수 믿음이 이 정도로 복되고 유익한지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1월24일(화)/누가복음21:20-28

제목: 1900년 동안 지연된 종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항상 세상 종말과 연결시켰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군대가 포위당하여 함락될 때가 세상 종말의 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다.(20절) 그런데 이 예언은 A.D 70년에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은 맛사다 전투에서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당하여 함락 당했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전쟁에서 110만명이 죽었고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유아까지 살육 당했다.(23절)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지 19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 세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세상 종말 때 있을 천체와 자연계의 이상 현상(25절)과 우주의 총체적 대이변(26절)과 예수님의 재림(27절)은 아직 문자 그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 종말의 징조는 이미 1900년 전에 이루어졌으나 아직 세상 종말은 오지 않았다. 세상 종말이 1900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든다.

11월25일(수)/누가복음21:29-33

제목: 무(無)를 향해 달리는 역사

예수님은 자연현상을 보고 계절을 감지할 수 있듯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하셨다.(31절) 성서는 인류에게 마지막 때가 있음을 말한다. 이 종말 때 현상 중 하나는 ‘천지가 다 없어지는 현상’이다.(33절) 종말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지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시간은 천지가 다 없어지는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무(無)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불교의 역사관은 시간론을 두고 돈다는 윤회사관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종착점까지 가는 직선 코스이다. 이 코스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드는 코스이다. 천지가 무로 돌아갈 때 비로소 새 세상(계21장)이 온다. 이 새 세상이 본래 우리가 가야할 고향집이다.(고후 5:1) 오늘 지금 내가 무심코 보내는 시간도 천지가 없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러므로 언젠가 무로 돌아갈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 순간 순간마다 잘 선택해야 한다.

11월26일(목)/누가복음21:34-36

제목: 깨어있어라

예수님은 종말에 대비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34절)고 하셨다. 이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잘 간수하라는 뜻으로 불신자가 아닌 믿는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성도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지구의 대환란 날에 대비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35-36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씀이다. 깨어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방탕함’이 따라 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영혼 관리에 나태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술취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한다. 술취함은 괴로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효력있는 방법이다. 술은 단 시간에,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탈피시켜준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몸과 영혼이 파멸되기 때문이다. 방탕함과 술취함의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11월27일(금)/누가복음21:37-38

제목: 낮과 밤이 다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37절) ‘쉬시니’ 라는 말은 ‘오래 유하시니’ 라는 말이다. 예수님은 산에 장시간 계셨다. 왜 장시간일까? 그는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장시간 기도하셔야지만 늘 성령 충만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나가서 가르치시면 어김없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38절) 예수님은 왜 항상 이러한 대중동원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매일 밤 산에서 쌓으셨던 영성 수련의 결과였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 모인 군중들과 함께 보내셨고 밤에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셨다. 그는 이같이 자기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다. 그리고 모여드는 군중에게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실 수 있었다. 그는 밤에는 항상 하나님과 깊이 만난 후에 낮에 사람들을 만나셨다. 우리도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밤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능력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낮과 밤도 달라야 한다. 우리는 밤에 깊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날 사람들을 만나보자.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